

광주시·한전, 문화전당 진입로 '명품길' 조성

금남로·충장로 인도변 배전반 50대 정비

19대 철거·4대 리모델링... 27대 디자인 개선

광주시와 한국전력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로인 금남로 인도 내 '홍물'인 배전반(配電盤)을 공동 정비하는 등 '광주 명품길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도시품격에 걸맞은 걷기 쉽고, 예술미가 넘치는 도심길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전은 자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의 명품길 조성 구간인 금남로 인도에 설치돼 있는 배전반 일부를 정비한다. 한국전력은 우선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과 금남로1가~3

가, 충장로 옛 학생회관 주변에 설치된 50대의 배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19대는 완전 철거하고, 옛 학생회관 주변 4대는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해 이설된다. 나머지 27대는 조정수로 가리는 등 디자인을 개선해 도시미관과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자연친화적 시설물로 탈바꿈한다.

배전반은 발전소·변전소 등의 운전이나 제어, 전동기의 운전 등을 위해 스위치·계기·릴레이 등을 일정하게 넣어 관리하는 장치로, 도심 내 인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한전은 그동안 배전반 이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선 6기들어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의 명품길 조성사업에 협력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시는 또 한전의 협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담당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노후, 부실시공, 지장장애물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보도블록을 일체 정비토록 하는 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상당수 보도가

노후해 파손·침하하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걷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에 따라 한전 배전반, 보도턱, 블라드 등 장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도 마련중이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보도공사 실명제 운영, 시민 보행길 모니터링단 운영, 연말 보도블록 교체 공사 관행 개선, 보도공사 부실업체 윌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보행환경 개선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문법수 광주시 도로과장은 "한전의 협조로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0월 기초장 재보선

호남에선 없을 듯

재보선 축소법안 통과 눈앞

아권 재편의 향배를 좌우할 첫 분수령으로 점쳐졌던 10월 재보선이 애초 예상과 달리 '초미니'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연 2회 실시해 온 재보선을 1년에 한 번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아권이 절대 약세인 경남 고성군수 한 곳만 해당된다.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만 관심도는 떨어진다. 즉, 아권의 최대 관심지역인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재보선은 10월에 치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보선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당락 여부를 떠나 호남지역에서 신당파들이 기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있었다.

반면, 이번 재보선을 통해 호남에서 '아권 재편 바람'을 일으키려 했던 신당파의 시간표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이 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정치권의 재편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의 아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야당 일각에서는 재보선과 관계없이 신당·분당론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환영식

19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 이르쿠츠크역에서 열린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환영식에서 블라디미르 이르쿠츠크주(왼쪽) 부지사 대행이 한국의 전소현 대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 70년... 광주·목포에 '평화의 소녀상' 선다

전국 곳곳에 아픈 역사 보존... 전주·군산에도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있다.

그 통탄의 시간 동안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190명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한 맺힌 생을 마감했다.

48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가운데 70번째 광복절 전국 곳곳에 이들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선다.

목포 시민들은 내년 3·1절이나 4·8 독립만세운동일 가운데 하루를 제막일로 잡기로 하고 본격적인 건립 운동에 들어갔다. 전

주에서는 66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광복절을 앞둔 다음 달 13일 제막식을 연다.

군산 시민들은 광복절날 동국사 경내에 세워 소녀상 건립에는 자국의 옛 잘못을 인정하는 일본인들이 성금을 보태기도 했다.

광주 청년봉사단체는 조각가와 모델 선정까지 마친 뒤 광주시 협조를 받아 이번 광복절 이전에 5·18 민주광장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했지만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5·18 사적지 보존과 다른 동상의 난립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다시 후보지를 찾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소녀상 건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위안부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이은 미국에서 세 번째 소녀상을 시카고에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다.

김군자(89) 할머니는 "소녀상을 보고서 생각이 없이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속상했던 경험이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복지재단 사무처 임직원 13명 공개 채용

특혜의혹 등 잡음 없애

광주시는 "산하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에서 사무처 임직원 1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애초 복지전문가 채용 등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채용 방식도 검토했으나, 특혜의혹 등 인사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최종 결정했다.

모집 분야는 사무처장 1명, 장애인지원단장 1명, 사무직 직원 11명(일반사무 2명, 사회복지 9명, 사회복지자는 장애인 1명 포함)이다.

사무처장과 장애인지원단장은 서류와 면접심사 전형으로, 사무직 직원은 직급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과목은 일반 사무분야는 한국사와 행정학이며, 사회복지분야는 한국사와 사회복지학이다.

주민등록이 광주시로 돼 있거나 광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채용조건은 사무처장만 연봉제이며, 기타 장애인지원단장과 직원은 일반 호봉제로 지급된다.

사무처장과 장애인지원단장 원서는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직원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복지재단은 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을 확대 변경하는 개념으로 오는 9월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광주복지재단 사무실(062-603-8910)로 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남북관계 빚장 열릴까

정의화 국회의장 회담 제안 그리고 강조했다.

서울국제안보회의의 北 초청 회담 시기와 관련, 정 의장은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 잇따라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내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닫힌 남북관계의 빚장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지난 17일 북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했다.

또 국방부도 같은 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안보회의인 제4회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을 사상 처음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남북 국회의장 회담=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광복 70년의 참다운 뜻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남북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지문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 명의로 돼 있으며 인민무력부 앞으로 발송됐다.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차관급으로, 5~6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에 북한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안보대회는 국방부가 2012년부터 해마다 서울에서 열어온 행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관급 국방관료와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올 행사는 9월 9~11일 열리며 모두 32개국을 초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초청한 데 대해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분단 70년인 점도 고려됐다"며 "북한이 참가할 경우 남북 간 양자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4회 2015

청소년축제

The 4th Youth Festival

2015. 8. 1 SAT 10:00~20:00 상무지구 Fantasy4 뮤직페스티벌 행사장 일대

상무지구 상무초각공원 옆 |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누리로 154
행사장 버스안내 : 순환1, 지원25, 지원45, 상무62, 상무63, 온정50, 618 상무지구 중정하차

경연대회 모집 안내 교육부 장관상 및 각 기관장상 수여

모집분야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학교폭력 척결 영상 공모전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 공모전

대 상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7월 21일까지(영상, 포스터 부문)
7월 28일까지(공연, 농구대회 부문)

문의전화 062.220.0555 / 010.5156.5596

참가신청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진로 탐색 및 작성상담 운영

신나는 체험활동관 운영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경품 이벤트

No Bullying, Yes Bling!

추최 |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